



J E O N B U K D E V E L O P M E N T I N S T I T U T E

최고위 지식(Smartest) 연구기관으로

CONTENTS

1. 최고위 지식(Smartest) 연구기관으로
2. "NOW Jeonbuk" 실현을 위한 '2006 JDI Smartest Plan'
3. 연구원 리서치 1
4. 연구원 리서치 2
5. 연구원 리서치 3
6. 연구원 리서치 4
7. 인적자원 결산
8. 연구원 소식

전라북도의 종합발전연구원으로 출범한 지 두해 째를 맞는 전북발전연구원의 2006년 새해 소회는 특별히 남다른 것 같다. 전북발전연구원은 그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전북여성발전연구원과 통합을 계기로 전라북도의 유일한 싱크탱크로서 자리매김을 하고 도민들에게 고품질의 삶의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해왔다. 출범 첫해는 연구 환경 조성을 위한 하드웨어 구축에 주력했다면 이제는 연구역량을 배가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구축에 진력할 생각이다.

세계는 빠른 속도로 변하고 있다. 그 변화의 속도보다 더 빠른 지식의 축적 없이는 미래를 준비할 수 없다. 이제 전북은 세계속의 전북으로 확고한 입지를 굳히기 위한 역할과 방향을 찾아야 한다. 국경, 업종간 구분이 따로 없는 무한경쟁시대에 전북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 급변하는 세계속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아이디어의 창출과 창의력의 발휘는 연구원의 연구역량을 키워 나가는 데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아이디어와 창의력은 지식의 뒷받침 속에서 영속화가 가능하다.

지난 연말 뉴스위크지는 '지식혁명- 왜 가장 현명한 국가와 기업이 승리가 갈 것인가' 라는 특집호에서 정치, 경제, 언론, 학술 등 세계의 쟁쟁한 지도자들로부터 받은 에세이를 종합하여 2006년의 화두로 '지식'을 꼽았다. 21세기 지식정보화시대에 지식이 새삼스러운

용어는 아니지만 시간이 갈수록 형용사처럼 쓰이면서 모든 분야에서 경쟁력을 좌우할 만큼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시대적 상황을 반영한 것이다. 국제문제 전문가들이 앞으로는 후진국, 개발도상국, 선진국이라는 말 대신 지식국가, 지식우위국가, 최고위지식국가라는 표현을 점점 더 사용하게 될 것이고 핵무기보다 지식을 기반으로 한 아이디어가 세상을 지배할 것이라고 전망한 것도 지식이 국가경쟁력의 원천임을 강조한 대목이다.

전북발전연구원은 궁극적으로 도민들의 행복지수를 끌어올려 삶의 질을 높여나갈 수 있는 공간의 창출을 위해 최고위 지식마인드를 갖춘 연구기관으로서 창의력과 순발력, 아이디어가 샘솟는 명실상부한 싱크탱크로서 역할을 충실히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전북발전연구원은 지식축적과 역량이 극대화되는 연계고리를 만들어가고자 한다. 전문적인 지식 역량의 흡수와 성과의 시너지 효과가 극대화되는 연구원으로서 관련 전문가, 단체들과의 유기적인 고리를 형성할 것이다. 2006년 전북발전연구원은 산학관간 수준 높은 지식과 정보를 유통·확산시켜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네트워크 매니저로서 지역혁신을 선도할 것을 다짐해 본다.



"NOW Jeonbuk" 실현을 위한 「2006 JDI Smartest Plan」

전북발전연구원은 NOW Jeonbuk 실현을 위한 최고의 지식 창출과 확산을 위해 「2006 Smartest Plan」을 설정하였다. Smartest Plan 설정의 기본 방향은 도민의 삶의 질 향상, 도정 현안 및 핵심 추진, 지역균형발전 계획 등의 실현을 중심으로 기획하였다. 특히 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연구원의 지식 창출 및 지식 흡수 능력의 극대화를 확립하고자 한다.

나아가 급속한 변화와 혁신이 발생하고 있는 글로벌 시대에 도민의 삶의 질 증대와 살고 싶은 전북 건설을 통해 전북의 위상과 경쟁력을 확대하고자 한다.

이러한 기본 방향을 바탕으로 여덟 가지 세부 실천 전략을 수립하고, 상응한 연구 과제를 수립하였다. 연구 과제의 선정은 전라북도의회, 시민단체, 일반시민, 전라북도 각 실무부서, 대학 전문가 그룹, 연구원 등을 중심으로 2005년 한 해 동안 지속적인 토의와 제안에 의해 이루어졌다. 세부적인 실천전략과 관련 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도민에게 희망을 제공해주는 "Supply 전략"이다. 환황해경제권 핵심 중심지역으로 부상하기 위한 새만금 사업의 체계적인 추진과 동북아 물류중심지 기반을 구축함으로써 강한경제 풍요로운 전북을 건설 하자는 계획이다. 또한 세계일류의 모델이 되는 혁신도시 건설과 군산경제자유구역 지정 추진하는 전략이다. 이를 위한 과제는 '새만금개발에 대한 대안별 평가연구', '새만금간척용지의 토지이용계획', '새만금 외국인 투자유치방안', '전라북도 물류종합발전계획연구' 등이다.

둘째, 신청사 시대 뉴패러다임을 구축하는 "Management 전략"이다. 신청사 시대에 적합한 공무원의 능력개발과 도민 중심의 고객 감동 서비스행정 실현을 추진하기 위한 실천 계획을 수립하고 유비쿼터스 시대를 선도하는 정보화 기반 확충 계획을 수립한다. 이를 위한 과제로는 '전라북도 민선 3기 성과와 미래발전전략', '도정주요업무 자체평가 도민만족도 조사', '전라북도 홍보실태조사 및 마케팅 방안', '전라북도 공공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갈등관리시스템 구축방안', '전라북도 정보화종합계획', '전라북도 GIS 추진 전략' 등을 선정했다.

셋째, 문화와 관광자원이 조화되고 찾고 싶은 전북 실현을 위한 "Assimilation 전략"이다. 지역발전을 선도할 문화·영상산업을 육성하고, 찾고 싶은 매력적인 체류형 관광지 조성 및 F-Tour 추진을 위한 전략이다. 이를 위한 과제로는 '서해안권역 녹색관광벨트조성', 'F-Tour테마별 관광프로그램개발' 등을 선정했다.

넷째, 전북 도민과 함께 하는 혁신역량 극대화를 추진하는 "Response 전략"이다. 도민이 체감하는 지역혁신역량 정착과 지식정보화 시대에 대응할 수 있는 전략 수립이다. 이를 위한 사업으로는 '2008 대형국책사업 발굴 및 제안' 과제수행과 전라북도 지역혁신협의회, 전라북도 인적자원개발 지원센터 등을 운영할 계획이다.

다섯째,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기업하기 좋은 전북을 실현하기 위한 "Technological Dynamic 전략"이다. Occupy 전북을 실현하고 산업구조 고도화 실현을 위한 신성장 동력산업 기반 구축과 전략 공고화를 시도한다. 이의 실천을 위한 과제로는 '전라북도 산업인적자원 수급 중장기 계획',

'전라북도 제조업체의 구조분석 연구', '효율적인 정책수립을 위한 지역통계의 적극적 활용방안' 등을 선정 했다.

여섯째, 지역특성을 살리고 조화로운 균형발전을 실현하는 "Equilibrium 전략"이다. 지역특성을 살리는 균형잡힌 지역개발과 동부권을 중점 개발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며, 국토종합계획 독자권역 설정에 따른 인프라 구축을 위한 계획을 수립한다. 이를 위한 과제로는 '동부권 특정지역 개발계획 연구', '전라북도 종합발전계획(수정계획)수립', '전주권 광역도시계획 권역설정과 현안과제 및 조사분석연구' 등이 있다.

일곱째, 선진화된 자생력 강화를 통해 살고 싶은 전북을 실현하는 "Settlement 전략"이다. 경쟁력있는 전북 농업의 실현과 선진화된 자연친화적 축산·수산·임업 시스템 마련, 지속가능한 자연친화적 환경보전을 통해 살고 싶은 전북을 구현하기 위한 전략이다. 이를 위한 과제로는 '자연환경보전 실천계획 수립', '농산어촌 체험마을 종합관리방안', '환경보전장기종합계획수립' 등을 선정했다.

여덟째, 도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는 참여형 공동체 실현을 위한 "Total Quality 전략"이다. 가족이 생활 가치의 중심이 되고 소외계층 및 여성, 노인의 능력개발 및 권익증진을 통해 삶의 질이 향상되는 전북 실현을 위한 계획을 수립한다. 이를 위한 과제로는 '전라북도 아동복지 기초수요조사 및 정책개발', '전북지역 미취업 여성의 경제활동 욕구조사 및 참여방안', '친환경적인 장모제도 개선방안' 등을 선정했다.

이상과 같은 기본방향과 실천전략을 통해 선정된 연구과제를 수행함으로써 Now 전북 실현에 기여하고자 한다.

■ 2006년 기본 및 정책연구과제 List

연번	과제명
1	2006년도 도정주요업무 자체평가 도민만족도 조사
2	전라북도 산업인적자원 수급 중장기계획 연구
3	전라북도 물류종합발전계획 연구
4	전라북도 제조업체의 구조분석 연구
5	농산어촌 체험마을 종합관리방안
6	서해안권역 녹색관광벨트 조성
7	전라북도 아동복지 기초수요조사 및 정책개발
8	전북지역 미취업여성의 경제활동 욕구조사 및 참여방안 연구
9	전라북도 GIS 추진전략 연구
10	새만금개발에 대한 대안별 평가연구
11	전라북도 민선3기 성과와 미래발전전략 연구
12	효율적인 정책수립을 위한 지역통계의 적극적 활용방안
13	전라북도 홍보실태 조사 및 마케팅 방안
14	2008 대형국책사업 발굴 및 제안
15	전라북도 공공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갈등관리 시스템
16	구축방안
17	자연환경보전 실천계획 수립
18	친환경적인 장모제도 개선방안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행복지수는?

국제결혼이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2003년 한국사회 전체 결혼 건수 가운데 국제결혼이 차지하는 비중이 8.4%, 2004년 11.4%로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농촌지역의 경우 2004년에 결혼한 남성 4명 중 1명 이상이 외국인 여성을 배우자로 선택해 한국사회 국제결혼 비율에 비해 2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이처럼 국제결혼이 급증함에 따라 우리사회도 다문화·다민족시대를 준비해야 한다는 주장이 일부 학자를 중심으로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국제결혼에서 나타나는 가장 뚜렷한 특징 가운데 하나가 '여성화' 현상이다. 한국인 남성과 외국인 여성과의 결혼 비율이 전체 국제결혼의 3/4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이와 같이 한국남성과 외국인 여성의 결혼이 급증하게 된 까닭은 우리사회의 심각한 성비 불균형 문제를 비롯하여, 여성의 경제-사회활동 참여 확대에 따른 만혼이나 결혼의 기피, 그리고 여성의 차별적인 결혼 선택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농촌의 경우 1960년대 이후 정부의 지역간 불균형 산업화 정책에 의해 젊은 여성인구가 농촌을 떠났고, 상대적인 농촌의 저발전 현상은 도시여성으로 하여금 농촌 남성과의 결혼 및 정주기피 현상을 초래하여 농촌 남성의 배우자 찾기가 상대적으로 힘들어 지고 있다. 결혼 적령기를 넘긴 농촌 노총각 문제가 국내적으로 해결될 수 없는 구조적 문제에 직면하게 되자 그 탈출구로서 외국인 여성과의 결혼을 모색하였고, 그 결과 국제결혼의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게 되었다. 그러나 국제결혼을 통해 이주해온 여성에게는 문화적 차이, 언어소통의 어려움, 불완전한 법적 지위, 우리사회의 외국인에 대한 편견 등 새로운 환경에서 극복해야 할 많은 문제점을 낳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원에서는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국내정착을 지원할 수 있는 대안 모색을 위해서 2005년 기본과제로 국제결혼 이주여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원은 전라북도 13개 시군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국제결혼 이주여성 608명을 대상으로 한국인 남성 배우자를 만난 과정 및 국제결혼 참여 원인을 비롯하여 국내생활 만족에 이르는 전체 과정을 조사하였고, 그 결과를 최근 연구보고서로 발간한 바 있다. 아래 내용은 연구보고서의 핵심 내용 가운데 하나인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생활만족도를 소개한 것이다.

국제결혼 이주여성 조사결과에 의하면, 전라북도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국제결혼 이주여성은 대체로 자신의 농촌생활을 만족스럽게 평가하였다. 전체 응답자 가운데 농촌거주생활과 주거환경, 건강상태 그리고 소비생활을 만족스럽게 평가한 여성이 40-50%를 차지한 반면, 불만족스럽게 평가한 여성은 20-25%에 그쳤다. 나머지 30-35% 정도는 중립적인 태도를 보여주었다. 비록 농촌생활에 만족하는 이주여성이 불만족하는 여성에 비해 2배 정도 많았지만, 전체 이주여성 가운데 1/4에 해당하는 여성이 불만을 갖고 있다는 사실은 결코 간과할 수 없으며, 이에 대한 준비를 지금부터 철저히 하지 않으면 향후 보다 심각한 문제에 직면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의 농촌생활에 불만을 갖고 있는 이주여성 중에는 조선족 출신과 일본 국적의 여성이 다른 국적의 여성에 비해 많았으며,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임금노동자로 취업하고 있는 여성, 또 외부모임이나 외부교육 참여와

관련하여 가족의 지지를 못 받거나 부부관계에 불만을 갖고 있는 여성, 그리고 농촌거주기간이 오래된 여성이 상대적으로 많았는데, 이러한 결과는 우리사회의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국내정착과 관련된 소중한 자료가 되고 있다.

먼저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국적 및 국내 거주기간과 관련된 것으로서 일본 국적의 여성이나 조선족 여성의 경우는 1980년대 이후부터 국내에 들어오기 시작하였고, 특히 일본 국적의 여성은 한국 농촌지역의 낙후성으로 생활에 대한 불만이 컸으며, 조선족의 경우는 국내에 거주하는 기간이 증가하면서 농촌의 힘든 생활에 불만을 갖게 된 것으로 이해 할 수 있다. 반면에 2000년 이후 급증하고 있는 베트남이나 필리핀, 태국, 몽골 국적의 여성은 자국의 생활과 비교할 경우 아직은 한국 농촌생활이 경제적으로 부유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농촌생활을 만족스럽게 평가했을 가능성이 있다. 그렇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한국사회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고 자신의 농촌생활에 대한 상대적 박탈감을 인식하게 된다면 불만도 고조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거나 외부활동이나 외부교육 참여와 관련해서 가족의 지지를 받지 못하거나, 그리고 부부관계에 불만을 갖고 있는 이주여성이 농촌생활에 불만을 갖고 있었는데, 가정경제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 최소생활이 보장될 수 있도록 재정적 지원과 함께 건강관리를 위한 의료혜택을 강화시켜야 할 것이다.

또한 국제결혼 이주여성에 대한 가족 및 지역사회 주민의 긍정적 이미지 제고를 위해 이주여성의 새로운 역할에 대한 홍보활동 강화와 행정적 지원이 필요하다. 특히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삶에 있어 배우자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배우자의 다문화 사회에 대한 이해가 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그 동안 국제결혼에 참여하는 한국 남성의 경우 결혼에 대한 사전 준비나 외국인 여성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태에서 출발하였기 때문에 결혼생활 과정에서 의도하지 않은 아픔과 상처를 줄 가능성이 있다. 그런 의미에서 향후 국제결혼에 참여하는 남성이 결혼에 앞서 철저히 준비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는 한편, 국제결혼 가정의 부부를 대상으로 부부간의 상호이해를 넓히는 교육도 농한기를 이용하여 제공할 필요가 있다.

사회복지연구팀 박재규



여성의 돌봄노동 이중적 부담에 대한 담론



여성의 경제활동과 삶의 방식에 대한 기대변화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가부장적인 가족질서 현실에서 취업한 기혼 여성들은 직업과 자녀양육 및 노인부양과 같은 돌봄노동의 이중 부담을 지고 있다. 자녀양육에 대한 보육 인프라의 부족과 노인부양에 대한 사회적 지원의 취약 등 우리사회의 돌봄노동의

제도적 지체로 인해 출산 지연 또는 소산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증가하는 2인 생계부양의 돌봄노동에 대한 요구는 여성의 노동시장 조건과 양립이 어렵다.

지금까지 일과 가족의 이중 역할을 수행해 왔던 여성들은 더 이상 양육과 노인부양의 책임을 혼자 감당하려고 하지 않는다. 이제는 여성의 돌봄노동의 사회화와 전통적인 성역할을 재정의 함으로써 가족 내 역할의 남성 참여를 유도하고 돌봄의 책임을 공유할 있도록 정책적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배경에서 2003년 제정된 '건강가정기본법'은 가족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조하고 있고 가족에 대한 사회적 지원의 정당성을 확보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건강가정기본법의 대체법안으로 발의된 가족지원기본법에는 부모의 양육권대환지원(제13조 모성권리의 보장, 제14조 부성권리의 보장)과 가족구성원의 부양에 대한 지원(제17조 가족구성원에 대한 부양지원, 제19조 가족간호휴가)을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돌봄노동에 대한 사회적 지원을 담고 있는 각 조항들은 여성들이 돌봄노동으로 인해 안고 있는 현실적이고 고착화된 근본적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비전을 담고 있지 못하다.

본 연구원에서는 지난해 20세 이상 60세 미만의 가구주 혹은 그 배우자를 대상으로 돌봄노동의 실태와 문제점 등을 조사한 결과, 법적, 제도적 지원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어려운 난제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한 점들은 이미 논쟁의 쟁점에 있었던 사안들이다. 이러한 결과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자녀양육이나 노부모 부양 등 가족원의 보살핌으로 인한 육체적 피로 및 직장생활에의 제약은 여성이 남성보다 더 높게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가정에서 자녀양육과 노인부양, 가사일 등은 여전히 아내와 주부의 몫으로 이해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일차적 책임은 여성에게 있기 때문에 직장생활을 하면서도 많은 여성들이 가사와 양육으로부터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둘째, 돌봄노동에 대한 사회적 지원수단을 거의 이용하지 않고 가족에 계만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장기적으로 돌봄노동을 둘러싼 가족원

간의 갈등을 야기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되었다. 이는 자녀양육의 경우에는 영유아를 위한 보육인프라의 부족에 기인하며, 노인부양의 경우에는 요양시설이나 다른 시설에 의존하는 것이 전통적인 부모 부양에 대한 효의 개념과 배치된다는 가족 가치관에 기인하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돌봄노동을 향후 고령화 사회와 연결해 생각해볼 때 가장 문제가 되는 점은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빈곤화이다. 즉 가족원에 대한 돌봄노동의 주 담당자로서 여성 대부분이 전업주부이거나 시간제 노동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 여성은 스스로 노후를 준비할 수 있는 기회를 갖지 못해 여성의 빈곤화가 초래되게 된다는 점이다.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평균수명이 길며 경제적으로 취약한 여성의 노후가 배우자나 기타 가족구성원에 의해 보장되지 않을 때 여성의 빈곤화는 더욱 심화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가족 돌봄노동에 대한 지원은 돌봄노동의 주체가 되고 있으면서 이에 대한 사회적 보상이 보장되어 있지 않은 지금의 현실을 개선할 수 있는 실질적인 가족정책을 마련하는 길이다.

지금까지 우리사회의 가족관련 정책은 정상가족의 규범과 성별분업을 지지하는 범위에서 시행되어 왔으며, 가족내 여성의 역할에 의존하여 선가정, 후 국가 개입의 원칙을 견지하면서 취약가족에 대한 사후대책에 치중하여 왔다. 그러나 이는 엄밀한 의미에서 가족정책으로 보기 어려우며, 요 보호 대상에 대한 최소한의 지원도 단편적이어서 가족 변화에 대처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산재해 있는 가족관련 정책이나 서비스에 대해 포괄적인 가족정책의 틀에서 새로이 접근되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여성역할의 변화로 인한 가족의 변화에 적극적, 능동적으로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돌봄노동과 관련하여 프레이저(Fraser, Nancy)가 제안하는 "보편적 양육자 모델(universal caregiver model)"은 기존의 돌봄노동의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적 가족정책 모델로서 시사하는바가 크다.

이는 인간의 삶을 조직해 온 노동과 부양의 근대적 패러다임에서 돌봄의 가치를 중심으로 한 여성들의 삶의 방식을 토대로 사회를 재조직하는 것이다. 이제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이 돌봄의 주체가 되며, 국가나 사회가 돌봄의 책임을 공유할 때이다. 일·가족·지역사회 공동체의 통합을 위해서도 돌봄의 사회적 확산과 제도화는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 정책적 사고나 담론의 변화가 요구된다. 가족 안에서 평등하고 민주적인 관계와 역할을 전제로 한 "가화만사성"은 이제 가족의 울타리를 넘어 제도적 차원의 지원이나 가족정책 도입으로 새롭게 용해되어야 할 가치이다.

| 여성정책연구팀 조경옥

물류기 · 중점 분석으로 본 군산항의 미래

환황해권의 주도적 역할과 새만금 사업은 전라북도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매개체의 역할은 군산항이 담당하고 있다. 실제로 군산항의 가능성은 무궁무진하다. 군산항을 이용하는 국가별 화물량의 1순위는 중국(19.28%)이고, 화물의 운송수단은 일반차량(21.2%)이 가장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산항이 환황해 경제권으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극복해야 할 과제들이 많다. 예컨대, 화주 및 물류업체들이 군산항을 이용하는데 가장 큰 애로사항은 적기선적의 어려움과 수심을 꼽고 있다. 이러한 이유는 군산항이 수심이 낮아 정기선이 자유롭게 기항하지 못하기 때문에 항로가 다변화 되어 있지 못하여 타 항만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심층 분석결과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군산항에 충분한 물동량이 없어서 해운선사들이 기항을 회피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또한 연구원에서 실시한 전북지역 수출입 물동량 전수조사¹⁾에서 나타난 일반화물은 16,561,000톤, 컨테이너 화물은 314,027TEU로 집계 되었다. 이중에 12.36%만이 군산항을 이용하고 있고 나머지 87.64%는 광양항, 부산항 등 타 항만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군산시 전주시, 익산시 등 3시에서 전라북도 전체물동량의 89.22%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군산항 물류 기종점(O/D : Origin/Destination)분석에서 물동량의 권역별 비중은 일반수출화물의 경우 수도권이 82.31%, 전북권이 9.07%인 것으로 분석되었고, 일반수입화물의 경우 전북권이 66.21%, 충남권이 12.96%인 것으로 나타났다. 컨테이너 수출화물의 경우에는 수도권 59.94%, 전북권이 12.68%로 분석되었고, 컨테이너 수입화물의 경우 전북권 59.95%, 수도권이 16.54%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실증조사에서 나타난 결론은 군산항이 물동량을 확보해야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는 것이다. 군산항 유입물동량을 확보하는 방안으로 첫째, 전북권의 수출입 물동량을 확보해야 하고, 둘째 군산항 이용이 가장 용이한 충남권 물동량을 확보 하여야 한다. 셋째, 현재 군산항에서 가장 많은 수출입 물동량을 처리하고 있는 중국 물동량을 확보하여야 하고, 넷째, 군산항을 이용하는 화주 및 물류업자들에게 물류인센티브 제도를 시행하여 단기간에 물동량이 증가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섯째, 군산항 컨테이너 부두를 활성화하여 컨테이너화물을 대량으로 유치하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방안을 시행하는 데에는 항만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여 고객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또한 항만요율을 개선해야 하고, 항로준설을 시행하여 대형 선박이 자유롭게 입출항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항만 자동화 시설을 도입하여 화물처리시간을 단축하는 등 타 항만과의 차별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이와 같은 여건이 구비되면 군산항의 물동량 발생 여건은 아주 양호한 것으로 예측되었다. 예측된 일반화물은 2011년을²⁾ 기준으로 58,288천톤으로 증가하고, 특수화물(자동차)은 336,496대, 컨테이너 화물은 545,918TEU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예측된 물동량을 처리할 때 발생하는 군산항의 경제적 파급효

과³⁾는 총 고용창출인원이 17,120명, 생산유발액은 1,014,279백만원, 부가가치 창출액은 492,142백만원, 인건비는 88,981백만원으로 추정된다. 또한 전북지역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는 고용기여도가 1.89%, 소득기여도는 1.04%, 부가가치 기여도는 1.83%로 나타났다. 그리고 전북권 물동량이 타항만을 이용하지 않고 군산항을 이용할 때 발생하는 내륙물류비 절감효과는 총 221,989백만원으로 추정 되었다. 군산항이 활성화 됨으로 해서 전라북도에 끼치는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아주 높게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전라북도가 군산항을 활성화 시키는데에 우선적으로 다음과 같은 정책을 실행하여야 한다.

첫째, 수심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군산항에 준설선을 도입해야 한다. 해마다 많은 예산을 확보하는 어려움을 해결하고 장기적으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준설선을 군산항 자체에서 구입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이러한 대책은 중앙에 의존하지 말고 전라북도와 군산시 그리고 군산지방해운항만청과 협의하여 필요한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

둘째, 물류전담 행정부서를 신설하여 물류산업을 육성해야 한다. 전라북도에는 현재 물류관련 전담부서가 없어 물류행정에 대하여 효율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 물류산업을 육성하려면 반드시 물류담당부서를 신설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셋째, 전라북도 수출입화물 정기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전라북도의 수출입화물이 얼마만큼 발생하고 물류흐름의 경로가 어떻게 형성되는지에 대한 기초자료가 전무하다. 물동량 조사가 정기적으로 이루어져야 전북 지역에서 발생하는 물류경로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고, 물류업자들의 애로사항을 파악하여 물류정책을 수립할 수 있다.

넷째, 군산항 활성화에 대한 연구기능을 확립해야 한다. 전라북도 소재 대학 및 연구소에 군산항에 대한 체계적 연구기능을 담당할 주체를 마련해야 한다. 그래야 군산항이 타 항만과의 경쟁에서 비교우위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군산항은 환황해경제권 지역에서 대중국 교두보역할을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지정학적 여건을 갖추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 중부권에 위치하고 접근성이 양호하여 내륙물류비를 절감할 수 있는 최적지로 꼽히고 있다. 그러나 선택과 집중의 우리나라 항만정책으로 군산항에 대한 투자가 상대적으로 미흡하여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는게 현실이다. 따라서 군산항의 대내외적 여건을 살리고 날로 성장하는 북 중국항만과의 경쟁에서 잠식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대대적인 투자가 필요하다. 이에 전라북도도 중앙의 항만정책에만 의존하지 말고 실현가능한 항만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하여 군산항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 산업 · 경제연구팀 박 형 창

1) 2005.6.1~8.31까지 본 연구원에서 전라북도 수출입 업체를 대상으로 전수조사함
 2) 2004년에는 일반화물 16,561천톤 처리, 자동차(특수화물) 254,000대 처리, 컨테이너 화물은 60,017TEU처리처리
 3) 2011년을 기준년도로 분석

외국인 기업유치 투자유인책 마련에 주력

1998년 이후 외국인투자유치법을 개정하여 중앙정부 뿐만 아니라 전라북도 차원에서도 외국인 기업유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외국인 기업유치는 단순한 외국자본의 도입뿐만 아니라 생산증대와 고용창출을 포함하여 기술이전, 선진경영기법의 습득, 외국기업과의 경쟁을 통한 기술발전 촉진 등의 긍정적인 효과를 수반한다. 1970년대부터 현재 까지 전라북도에 유치된 120개 외국인 기업체를 국가별로 보면, 일본 41(34.2%), 미국 30(25.0%), 프랑스 11(9.1%), 독일 10(8.3), 싱가포르 5(4.2%), 중국 5(4.2%), 네덜란드 3(2.50%), 말레이시아 3(2.50%), 기타 12(10.0%)개 업체이다. 2000년 이전에는 주로 일본 기업이 투자를 이루었으나 최근에는 미국과 중국이 전라북도의 투자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실제로 미국 기업은 최근 들어 기계 및 식품업종에 많은 투자를 하였고, 전라북도 차원에서 가장 많은 잠재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는 중국은 과거에는 주로 서비스업 위주의 투자 양상을 보이다가 근래에는 제조업 위주의 투자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투자기업을 업종별로 구분하여 보면, 금속 34(28.3%), 화학 25(20.8%), 섬유 및 의류 10(8.3%), 식품 17(14.2%), 전기 및 전자 10(8.3%), 운송용 기기 2(1.7%), 기계 14(11.8%), 제지 및 목재 2(1.7%), 서비스 1(0.8), 기타 제조업 5(4.1%)개 업체로 나타나, 과거에는 주로 화학, 보석, 섬유 및 의류가 주류를 이루었으나 최근에는 전라북도의 전략산업인 식품산업과 기계 및 자동차 산업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전라북도가 외국기업의 유치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시책들을 살펴보면, 자동차 기계 물류 등의 전략산업을 중심으로 맞춤형 투자유치사절단을 파견하고, 효율적인 해외투자유치 사업의 전담 마케팅팀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군산자유무역지역 등의 산업단지, 군장신항, 새만금 등의 SOC사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그러나 외국기업의 유치를 위해서는 제도적인 개선보다는 지역특성에 맞는 외국인 투자기업의 발굴과 이들 기업에 대해 유인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외국인 투자기업이 어떤 조건을 선호하고 있는가에 우선적으로 초점이 맞추어 져야 하고, 여기에 적합한 투자 유인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외국인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유인책 및 조건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첫째, 투자기업이 고객 및 시장확보에 필요한 물류 인프라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글로벌 기업들은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의 물류인프라가 잘 갖춰지고 물류비 절감이 가능한 지역을 중심으로 조달·생산·판매거점화를 추진한다.

전라북도에 투자한 외국인 기업체의 설문조사 결과, 투자 동기는 고객 및 시장확보 24.2%, 저렴한 용지 21.2%, 편리한 교통접근 9.1%, 유사동종업체 집적지역 9.1%, 저렴한 노무비 9.1%, 기타 27.3%로 나타났고, 투자환경의 문제점은 물류체계 36.7%, 사회간접자본 36.6%, 지원체계 10.0%, 요소비용 10.0%, 행정서비스 6.7%로 나타나 외국 기업들이 전라북도에 투자하는 중요한 조건은 물류기반시설의 확보로 인식되고 있다. 이는 세계

시장과 네트워크 구축에 중요한 공항과 항만의 물류인프라 구축이 전라북도도 중점적으로 유치하고자 하는 전략산업, 첨단산업 및 물류유통산업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투자유치 인프라 시설임을 의미하는 것이다. 투자유치 인프라 개선에 소요되는 재원조달을 위해서는 프로젝트 파이낸싱 제도를 도입해야 하고, 특히 외국인들의 자녀를 위한 외국인 교육기관 유치는 프로젝트 파이낸싱 제도를 도입하여 대규모 민간자본을 유치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전략산업과 연계된 산업 클러스터 중심으로 유치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전라북도에 투자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100억원의 투자유치가 이루어졌다는 가정 하에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효과를 산출해 보면 다음과 같다.

군산 자동차 클러스터내의 자동차 부품단지의 경우 기대할 수 있는 고용창출인원은 약 1,274명이고, 생산유발액은 636.9억원이며, 부가가치 유발액은 445.9억원으로 추산되었다. 반면에 클러스터 기반구축이 미흡한 동양 아이엔아이의 경우 100명의 고용창출과 283.3억원의 생산유발, 40억원의 임금소득이 유발되는 것으로 추산되었고, 대표적인 대기업이라 할 수 있는 LS전선의 경우 약 59명의 고용창출과 247.3억원의 생산유발, 28.7억원의 임금소득을 파급시키는 것으로 추산되었다. 이는 전라북도에 투자 의향이 있는 외국인 기업에게 전략산업과 연계된 산업클러스터 지역에 입지할 경우 고정비용을 획기적으로 감축시킬 뿐만 아니라 투자에 소요되는 기간을 단축시키는 효과가 있음을 강조해야 함을 의미한다.

셋째, 유치된 외국인 기업의 사후관리이다.

현재 투자한 외국인 기업체는 휴·폐업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투자한 외국인 기업체 120개 업체 중 가동 87(72.5%), 폐업 25(20.8%), 합병 2(1.70%), 휴업 1(0.8%), 준비 중 5(4.2%)개 업체로 나타났고, 폐업의 원인은 모기업의 부도, 합작기업과 불화, 노사관계로 인한 본국 철수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설문조사결과 대부분의 외국기업들이 투자확대 시 현재의 전라북도 지역을 선호하고 있어 이들 기업에게 재투자를 유인하기 위해서는 효율적인 사후관리가 이루어 져야 한다.

넷째, 중·장기적 관점에서의 외국인 기업유치의 마케팅전략을 수립하고 지역에 대한 홍보와 외국인 투자 유치 확대를 위한 전문적 기능을 갖춘 마케팅 추진 주체가 필요하다. 마케팅 추진 주체의 역할은 첫째, 투자기업체 발굴 측면에서는 외국인 투자기업의 DB화, 외국인 투자 전문가 중심의 개방형 충원, 투자의 영향력 있는 인사의 집중관리, 국내 다국적 기업대상 투자 상담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하고, 둘째, 마케팅 역량 강화 측면에서는 전라북도 투자유치 브랜딩 사업, 전라북도 투자 마케팅 전담팀 구성, 업종별 공동투자 설명회 및 브로슈어 제작, 해외 광고사업 다양화, 정기적인 국내·외 영자판 신문 및 뉴스사이트 광고, 투자유치 가이드북의 제작 등의 역할의 수행이 필요하다.

전북인적자원개발지원사업 2차년도 결산

21세기 지식정보화 사회에서 새로운 지식과 정보를 창출·활용·유통하여 전북도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지역발전 전략과 연계한 정책개발 및 지역인적자원개발 주체간의 네트워크 중심체로서 전라북도 도민의 역량강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전라북도인적자원개발지원센터(이하 전북HRDC)가 2차년도의 사업을 마무리 하였다.

전북HRDC는 2004년 6월 3일 전라북도로부터 전북발전연구원내에 지정·설립되어 1차년도 사업에서 전라북도인적자원개발 기본계획과 DB구축을 마치고 2차년도에는 후속사업으로 전라북도 인적자원아카데미 사업, 전라북도인적자원개발 시행계획, 2005년 전라북도 인적자원 Map 발간사업을 수행하였다. 2005년 전라북도 인적자원개발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전라북도와 전북HRDC는 명확한 역할분담을 시도하여 전라북도에서는 시범사업을 중점적으로 시행하고 전북HRDC는 연구사업과 도민의 의식수준을 향상시키는 홍보와 강좌 사업을 중심으로 수행하였다. 한편 전라북도 자치행정과에 소속되어있는 인적자원개발 멘토링사업과 전주영어마을 지원사업, 동아리 지원사업 등 시범사업을 담당하였다.

전라북도 인적자원아카데미 사업은 인적자원개발에 대한 강좌부문과 전문가들의 모임인 인적자원개발 포럼, 그리고 전라북도인적자원개발 평가지표개발 사업으로 나누어져 실행하였다.

인적자원개발 아카데미 강좌는 전라북도 인적자원개발기본계획에 수록되어있는 전라북도인적자원개발에 필요한 내용을 강의함으로써 도민들에게 인적자원개발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홍보를 통해 전라북도 인적자원개발사업수행의 시너지효과를 창출하기 위해 운영되었다. 2차년도 사업에는 총 3회의 강좌가 개설되어 제1회에는 "인적자원이 전북의 미래이다"라는 주제로 승용배 교육인적자원부 인적자원개발정책국 정책조정과장과 두재균 전북대학교 총장이 강연을 하였으며 제2회에는 "산업인적자원개발과 전라북도 기업의 경쟁력 강화방안"이라는 주제로 송시열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인력개발국장과 윤봉락 현대인재개발원 HRD사업본부장이 강연을 하였다. 그리고 제 3회에서는 "전라북도 여성인적자원의 적극적 활용방안"이라는 주제로 김남희 한국여성개발원 연구위원이 강연을 하였다. 3회에 걸친 강연을 통해 전라북도인적자원개발 전문가와 일반인을 대상으로 전라북도인적자원개발사업에 대한 홍보, 교육인적자원부를 비롯한 인적자원개발 분야별 주무기관 담당자를 강사로 초청하여 중앙기관과의 네트워크 형성, 전라북도 인적자원개발의 의의 및 활동을 대외적으로 표방하는 역할, 그리고 전라북도 도내 각 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향후 인적자원개발사업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수행을 기대할 수 있다는 성과가 있었다. 그러나 아직도 인적자원개발에 대한 의식의 부족으로 적극적인 참여가 부족하였고 강사에 대한 DB가 확보되지 않아 강연에 따라 질적 차이가 존재한 것은 개선해야 할 점으로 지적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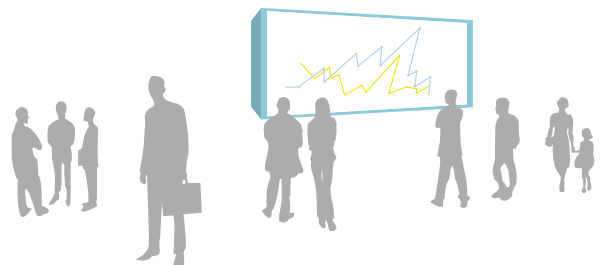
인적자원개발 포럼은 전라북도인적자원개발정책 현황 및 추진체계를 진단하고 전라북도인적자원개발기본계획의 구체적인 실행계획에 관한 방향성을 제시하며 지속적인 포럼 운영을 통해 전라북도 인적자원개발의 공

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운영되었다. 제1회는 "전북 인적자원개발과 관리의 비전"에 대하여 전북대학교 이경선 교수가 발제를 하였고 제2회는 "전라북도 문화관광산업인력개발 방안"에 대하여 전북발전연구원 성기만 연구위원이 발제를 하였고 제 3회는 "전라북도 학교교육을 통한 인적자원개발 방안"에 대해 전주교육대학교 이경한 교수가 발제를 하였고 제4회는 "전라북도 대학주도의 산학연관 협력을 통한 인적자원개발"에 대하여 군장대학교 채수 교수가 발제를 하였다. 인적자원개발에 대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 포럼을 진행함으로써 인적자원개발에 대한 다학제간 토론이 진행되어 보다 심도 있고 다양한 의견이 제시됨으로써 전라북도 인적자원개발 기본계획을 Follow up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으나 포럼구성원이 교수 위주로 되어있어 토론내용이 현장과 연계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와 차후 사업이 시행될 때 최대한 많은 인적자원개발 실무자를 포함시켜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전라북도 인적자원개발 평가지표 연구는 전라북도인적자원개발기본계획에 수록되어있는 사업에 대한 평가지표를 개발하는 연구 사업으로 인적자원개발기본법 8조 1항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에 대해 매년 평가를 시행하여야 한다"는 조항으로 사업 필요성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평가지표 개발은 인적자원개발기본계획에 포함되어있는 사업을 수행 시 사업자를 선정하는데 있어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기준을 통해 사업선정을 가능하게 하고 평가지표를 미리 제시함으로써 사업 수행의 효율성을 증대시킬 수 있다.

전북HRDC는 인적자원아카데미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전라북도 인적자원개발 주체간의 네트워크의 중심체로서 역할과 지역인적자원개발정책을 위한 도차원의 Think-Tank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였고 보다 효율적인 인적자원개발사업 추진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 전라북도인적자원개발지원센터 이강진



▣본원 2005년도 2차 정기 이사회

본원은 구립 26일 본원 회의실에서 2005년도 2차 정기이사회를 열고 2006년도 사업계획과 예산 심의를 하였다.

▣2005년 종무식 및 2006년 시무식, 우수직원 표창

본원은 구립 30일 2005년 종무식과 지난 2일 2006년 시무식을 가졌다. 종무식에서는 한해 동안 근무성적이 우수한 직원(김명룡, 배진원, 이성재, 김혜성, 장래의 이상 5명)들에 대한 표창이 있었다. 본원 한영주원장은 종무식사를 통해서 한 해 동안 수고한 연구원식구들을 격려하고 2006년은 연구원의 연구역량을 배가할 수 있도록 최고위 지식창출에 앞장서자고 다짐했다. 한편 종무식에 앞서 강현욱전라북도지사가 본원을 순시차 내방, 직원들을 위로하고 전북발전을 위한 전북발전연구원의 역할을 강조하였다.

▣전국 시·도지역혁신협의회 의장단 회의 및 간담회

전라북도 지역혁신협의회는 구립 28일 전주코야호텔 무궁화홀에서 강현욱전라북도지사, 김영석전라북도지역혁신협의회장, 한영주전북발전연구원장 및 지역혁신협의회회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라북도지역혁신협의회 간담회 및 운영위원회가 개최되었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역혁신협의회 05년 추진실적 및 06년 사업계획보고와 함께 본원에서 수립한 국책사업 발굴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의견이 오갔다.

이와 함께 현재 임실군 지역혁신협의회 의장직을 맡고 있는 이선구위원(예원대총장)을 수석부의장으로 위촉하였다.

이에앞서 지난 2005년 12월 15일부터 이틀간 제7차 전국 시·도 지역혁신협의회 의장단 회의가 전주리베라 호텔에서 개최되었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성경룡위원장을 비롯한 시·도 관계자, 전국 시·도 지역혁신협의회 의장 및 사무국장이 참석한 이번회의에서는 그간의 주요성과와 향후 발전방안에 대한 보고와 토론이 이루어졌고 다음날에는 현장방문이 있었다.

이와는 별도로 6개 영호남지역혁신협의회 의장들은 상호협력방안을 논의하고 지속적인 협력을 위해 영호남지역혁신협의회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합의 하였다.

▣제3회 인적자원 아카데미 개최

전라북도 인적자원개발지원센터에서는 '전라북도 여성 인적자원의 적극적 활용 방안'에 관한 제3회 인적자원 아카데미가 2005년 12월 15일 본원 회의실에서 열렸다.

도내 평생교육기관, 교육청, 기업, 시군주민자치센터 및 인적자원개발부서 담당자들 등 9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여성 인적자원의 적극적 활용 방안'이란 주제로 김남희(한국여성개발원 인적자원연구실 연구위원)이 주제발표를 했다.

「전북발전포럼」 원고모집

- 원고성격 : 지역현안 등과 관련된 칼럼, 논문 등
- 제출기한 : 수시모집
- 제출방법 : 이메일(이메일로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 등기우편으로 디스켓과 함께 제출), 게재된 원고에 대해서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함.

대형국책사업 공모 당선작 시상



구립 13일 본원에서 주관한 「대형국책사업발굴현상공모」 당선작에 대한 시상식이 있었다. 이날 시상식에는 전문분야에서 우수작에 이대성씨(푸드 콤플렉스 프로젝트, 언론인), 가작에 이홍로씨(USN기반 새만금 ICT 연구센터, 군산대교수)가 각각 수상하였고 일반분야에서는 우수작에 송해순씨(살바 복합단지개발, 전북대대학원)가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2005년 기본연구보고서 출간



본원은 「전라북도 농촌지역 국제결혼 이주여성 정착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등 2005년도 기본과제 18건에 대한 연구보고서를 출간 하였다. 출간된 연구보고서는 도청각실과 및 관련 기관에 배포되어 정책개발에 활용되어진다.

원장 동정

-지속가능발전위원회 본회의 및 제3기 활동 보고회

지난 12월 12일 서울 그랜드힐튼호텔에서 열린 대통령 직속 지속가능발전위원회 본회의 및 제3기 활동 보고회에 참석.

-선진지방자치체를 위한 비전 및 정책과제 토론회 발표

지난 12월 15일 광주 5·18기념문화센터에서 민선지방자치 10주년을 맞아 한국지방행정연구원·광주광역시·전라남도·전라북도등 공동으로 개최한 "민선 지방자치 10년 평가 권역별 토론회"에서 "민선지방자치 10년, 전북의 현재와 미래"를 주제로 발표를 하였다.

이번 토론회는 지방자치 10년 성과의 평가와 앞으로 지방자치가 나아가 할 방향을 모색하고, 각계각층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해 지방자치 발전의 정착을 도모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알림 「연구과제」 공모

연구과제에 대한 아이디어를 공모하고 있습니다. 연구과제로 채택된 아이디어 제안자에게는 본원에서 발간하는 연구보고서 및 정기간행물 등을 송부해 드리며, 심사를 거쳐 공동연구참여 등의 기회를 드립니다. 아이디어 제안은 홈페이지 www.jd.re.kr(연구제안)를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